

제29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경제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2010. 9. 2(목)

기획재정부

목 차

I . 세계경제 동향	1
-------------------	---

II . 국내경제 동향	3
--------------------	---

III . 향후 정책방향	6
---------------------	---

I.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시현

-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유럽 재정불안 지속 등으로 향후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증가

① [미 국] 2/4분기 성장률이 하락(전기비연률 3.7% → 1.6%)하는 등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9%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등 고용·주택시장 부진으로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실업률(%) : (10.3)9.7 (4)9.9 (5) 9.7 (6) 9.5 (7) 9.5

* 기존주택판매(전월비, %) : (10.3)7.0 (4)8.0 (5)△2.2 (6)△7.1 (7)△27.2

- 다만, 소비·투자 회복세, 연준(FRB)의 정책대응 등을 고려할 때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8.27일 버냉키 FRB 의장은 경기상황 악화시 국채매입재개 등 추가적인 통화완화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언

② [중 국]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반기 중 11.1% 성장(1/4분기 11.9%, 2/4분기 10.3%)

- 2/4분기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정책에 주로 기인
- 하반기에는 부동산규제에 따른 투자증가율 둔화 등으로 상반기 보다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견조한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9% 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③ **[일 본]** 수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2/4분기 들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전기비연률 4.4% → 0.4%)

- 엔화강세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된 가운데 소비 등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증가

* 수출(전년동기비, %) : (10.2)47.7 (3)45.7 (4)42.7 (5)33.8 (6)29.2
 엔/달러(월말기준) : (10.2)89.2 (3)92.9 (4)94.0 (5)91.0 (6)88.7 (7)86.7 (8)84.6

* 민간소비지출(전기비, %) : (09연간)△1.0 → (10.1/4)0.6 → (2/4)0.0

-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일본은행과 정부는 **시중자금지원 및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8.30일)

④ **[유 로]** 남유럽 재정위기, 고용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2/4분기 성장률은 독일 등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

* 실업률(%) : (10.1)9.9 (2)9.9 (3)10.0 (4)10.0 (5)10.0 (6)10.0 (7)10.0

- EU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7.23일) 이후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최근 세계경제 둔화 우려의 영향을 받는 모습

-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한 우려, 각국의 재정긴축 등으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⑤ **[아시아 개도국]**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들은 수출·내수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양호한 성장세 예상**

주요국의 GDP 성장률(%)

		09년					10년	
		연간	1/4	2/4	3/4	4/4	1/4	2/4
전기비 연율	미국	△2.6	△4.9	△0.7	1.6	5.0	3.7	1.6
	일본	△5.2	△16.6	10.4	△1.0	4.1	4.4	0.4
	유로	△4.1	△9.8	△0.3	1.6	0.5	0.8	4.1
전년 동기비	중국	9.1	6.2	7.9	9.1	10.7	11.9	10.3
	인도	6.5	5.8	6.0	8.6	6.5	8.6	8.8
	인도네시아	4.6	4.5	4.1	4.2	5.4	5.7	6.2
	베트남	5.3	3.1	3.9	4.6	5.3	5.8	6.2

II. 국내경제 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

○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최근 미국·중국 경기둔화 조짐 등 대외여건의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

1 [성 장] 수출·내수의 동반 호조로 금년 상반기 우리경제는 전년동기대비 7.6% 성장

○ 수출이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대내외 수요회복,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큰 폭 증가

* 통관수출(%) : (10.3)34.2 (4)29.8 (5)40.5 (6)30.1 (7)28.3 (8)29.6

10.상반기 GDP 성장률(전년동기비, %)

	GDP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화수출	재화수입
증가율	7.6	5.0	3.5	29.4	△0.6	18.0	21.7

○ 7월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전월비 1.1%)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사상 최고(84.8%) 수준을 나타내는 등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1%)하였으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영향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평가

2 [고 용] 공공부문 취업자수는 대규모 추경 일자리 사업이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감소하였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 강화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08	09.상	하	10.1/4	4	5	6	7
취업자 증감	14.5	△14.0	△0.3	13.2	40.1	58.6	31.4	47.3
- 공공 부문	4.3	8.8	29.5	2.5	9.8	6.9	△14.1	△18.5
- 민간 부문	10.2	△22.9	△29.7	10.7	30.3	51.7	45.5	65.8

③ **[가계소득]** 경기 및 고용 회복이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

- '10.2/4분기는 1분위(하위 20%)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17.9%) 하면서 소득5분위배율(상위 20%/하위 20%)이 5% 이하로 하락

* '10.2/4분기 분위별 소득증가율(전년동기비, %)

: 1분위 17.9, 2분위 9.7, 3분위 6.8, 4분위 7.1, 5분위 6.4

연도별 2/4분기 소득5분위배율(배)

03	04	05	06	07	08	09	10
5.03	4.89	5.15	5.13	5.18	5.23	5.14	4.94

④ **[소비자물가]**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대 중반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흐름 지속

-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의 확대, 석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

* 러시아는 가뭄·산불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밀 수출을 금지(8.5일)

(전년동월비, %)	10.1	2	3	4	5	6	7	8
소비자물가	3.1	2.7	2.3	2.6	2.7	2.6	2.6	2.6
근원물가	2.1	1.9	1.5	1.5	1.6	1.7	1.7	1.8

⑤ **[주택시장]**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하락($\Delta 0.1\%$) 하는 등 부동산가격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거래도 부진

* 아파트 거래량(월평균, 만건) : (08)3.9 (09)4.4 (10.1/4)4.0 (2/4)3.6 (7)3.2

- 수도권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 지방은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

(전월비, %)	10.1	2	3	4	5	6	7	8
전 국	0.1	0.4	0.3	0.2	0.1	0.0	$\Delta 0.1$	$\Delta 0.0$
- 수도권	0.0	0.1	0.0	$\Delta 0.2$	$\Delta 0.4$	$\Delta 0.7$	$\Delta 0.7$	$\Delta 0.5$
- 지방광역시	0.4	0.8	0.7	0.8	0.6	0.5	0.4	0.4

6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안정을 회복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조정을 받는 모습

- 주식시장은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8월중 연중 최고치(8.9일 1,790p)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등락(8.12일 1,722p)
- 원/달러 환율은 경제지표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1,160원대 까지 하락했으나,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다시 상승

(기간말)	'09	'10.6	7	8.9	8.12	8.19	8.26	8.31
코스피(p)	1,683	1,698	1,759	1,790	1,722	1,780	1,730	1,743
원/달러	1,168	1,210	1,187	1,166	1,186	1,173	1,190	1,198

- 국고채 금리는 7월 정책금리 인상 전후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

	'09말	'10.6.10	7.9	7.14	7.30	8.13	8.23	8.31
CD(91일)	2.86	2.45	2.63	2.63	2.63	2.63	2.63	2.63
국고채(3년)	4.41	3.64	3.94	3.98	3.80	3.73	3.62	3.55

◆ (평 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

- 경제성과의 개선이 아직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 현재의 경기 및 고용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서민생활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전 망) 하반기 우리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나,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8% 성장에 무리가 없을 전망

- 다만, 미국·중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Ⅲ. 향후 정책방향

- ◆ 대외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
- ◆ 경기회복의 성과가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

①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

-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추진

②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 일자리가 서민생활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우리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
-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
- 경기회복에 따른 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개선 추진
-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8.30일 발표)

③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녹색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을 마련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의 국격을 제고